

배터리업계, 수익확보 ‘구슬땀’ 내년 전기차 시장 반등 노린다

국내 배터리社 3분기 실적 부진
ESS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 집중
美·유럽 전기차 수요회복 대응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3분기 실적에 먹구름이 겼다. 다만 국내 배터리사들의 주요 시장인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따르는 모양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사들이 3분기 바닥을 찍고 업황 회복세를 맞이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내년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 관측이다.

유안타증권은 최근 ‘전기차·배터리 산업’ 산업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각각 27%, 16%로 내다봤다. 올해 판매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CO2 배출 규제 회피를 위한 판촉 활동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지난 3분기에 전분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보였

다. 3분기 매출 6조8778억원, 영업이익 4483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38.7%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전 분기 대비로는 각각 11.6%, 129.5% 증가세를 보였으며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기)을 탈출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금액 4660억원을 제외한 영업손실은 177억원으로 전분기(2525억원 손실)보다 대폭 줄어든 규모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지난 28일 컨퍼런스를 통해 “전기차(EV)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출하량 증가에 따른 전사 가동률 개선, 메탈가하향 안정화에 따른 단위당 원가 부담 감소로 IRA 세액공제 효과를 제외하고서도 전 분기 대비 수익성을 상당히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3분기 영업이익이 129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영업이익은 46.1% 줄었다. 다만 제너럴 모터스(GM)와 합작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유럽과 아시아 주요 완성차업체(OEM)향 신규 수주 확보, 전력용 ‘삼성 배터리 박스’(SBB) 1.5출시 등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해 캐즘 극복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 30일 컨퍼런스를 통해 “내년 완성차 업체들은 유럽 내 판매량들의 평균 CO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15% 감축해야 하는 규제 강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며 “유럽 내 전기차 정책 지원도 다시 확대하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오는 4일 실적 발표를 앞둔 SK온은 이번 분기에도 영업손실을 낼 경우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SK온은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315억원 4601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관계자는 “업황이 바닥은 지났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업계는 보수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해 ESS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포항공과대 특강

“6가지 메가트렌드에 기업 생존 달려”

(AI·DX·우주항공 등)

“지금 산업계 구조 변환 변곡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기술, 그중에서도 핵심 기술 확보 여부가 기업 생존의 핵심”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30일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된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사장이 대학교 특강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모교인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특강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장 사장은 기업의 생존 여부를 가를 6가지 메가트렌드(Mega trend)인 ▲Automotive ▲AI ▲Energy ▲Humanoid ▲DX(Digital Transformation) ▲우주항공에 대해 설명했다.

장 사장은 “지금 산업계는 1980년대



삼성전기 대표이사 장덕현 사장이 지난 30일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삼성전기

는 PC 산업, 2000년대 모바일산업을 거쳐 AI 기반 Automation(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스마트팩토리 등)이 발달하고 있는 산업 구조 변환의 변곡점”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현대로템, 무인 소방로봇 최초 공개

2024 아시아 기계&제조산업전

무인화, 고속철 등 미래 혁신기술 소개

현대로템이 건물 지하 화재 등 위험한 현장에서 소방관을 대신해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로봇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로템은 오는 11월 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기계 & 제조 산업전(AMXPO)’에 참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현대로템은 무인 소방로봇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기술과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소가 접목된 미래 혁신 기술을 알린다. 인명을 보호하는 무인화 기술을 비롯해 전기차 부품용 고속·고정밀 프레스, 수소 밸류체인, 고속철 등 고도의 기술력과 노후가 요구되는 사업 솔루션을 소개한다.

먼저 현대로템은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방청과 함께 공동 개발 중인 무인 소방로봇을 최초로 선보인다. 무인 소방로봇은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HR-SHERPA)’를 플랫폼으로 화재 진압 장비를 탑



현대로템 무인 소방로봇.

/현대로템

재한 차량이다.

무인 소방로봇의 기반이 된 HR-셰르파는 전동화 차량으로 원격, 무인 운용이 가능해 사람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어 군용은 물론 민수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화재 안전을 위한 무인 소방로봇을 비롯해 사업 전반에 걸친 기술 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선보일 것”이라며 “무인화와 전동화 등 진보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미래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르노, ‘그랑 콜레오스’ 패밀리카 시장 인기몰이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호평일색
“상품성 등 기대를 넘어서 좋은 차”

르노코리아가 4년만에 선보인 신차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르노코리아의 내수 판매 5010대 중 무려 3900대의 차량이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일 정도로 패밀리카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같은 인기는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의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에 대한 상품성에 대한 호평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출시 전부터 ‘야심작’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큰 기대를 받았던 차량임에도 그 기대를 훌쩍 뛰어넘은 차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자동차 전문가부터 일반 소비자까지 그랑 콜레오스를 타본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차량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들의 시승기에서는 ‘좋은 차’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르노 성수에서 진행된 특별 시승 행사에 참석한 고객들 대부분은 시승에 만족하고, 계약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시승 행사에 참석한 고객 중 80%가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고, 이 중 64%는 즉시 또는 3개월 이내에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타봐야 차량의 매력을 알 수 있다”는 평가도 줄을 잇는다. 그랑 콜레



르노코리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주행 모습.



그랑 콜레오스 ‘openR 파노라마 스크린’.

오스의 넓은 실내 공간과 부드러운 주행 성능은 덕분이다.

그랑 콜레오스는 길이 4780mm, 폭 1880mm, 높이 1680mm의 큰 차체에 더해 2820mm의 동급 최대의 휠베이스 사이스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동급 대비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해 쾌적한 탑승감을 선사한다. 2열 공간 역시 동급에서 가장 긴 320mm의 무릎 공간을 확보했으며, 폴딩이 가능해 가솔린 모델 기준 최대 2034L의 트렁크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시트는 그랑 콜레오스의 쾌적함을 더한다. 운전자와 동승객의 쾌적하고 편안한 탑승을 위한 ‘하이컴포트 시트’

는 열선 및 통풍 기능이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 테크노 트림은 6가지의 전동 조절 기능과 시트 포지션 메모리 기능, 아이코닉 및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는 8가지 전동 조절 기능과 메모리 기능을 탑재해 편안함을 한층 더했다. 여기에 환경을 고려한 세련된 프리미엄 소재를 사용했으며, NVH(소음, 진동, 불쾌감) 저감 기술 역시 운행의 편안함을 더한다.

폼 재질로 흡음 기능을 높인 ‘폼 타이어’ 역시 타이어의 공명음과 지면 접촉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해 차량의 정숙성을 높인다. 또 차량 전반에 활용한 흡차음재와 완벽한 하부 마감은 고급 세단에 버금가는 최상의 쾌적함을 구현한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판매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랑 콜레오스의 고객 경험 확대를 위해 시승 행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에코프로씨엔지, 메탈두 ‘블랙매스’ 확보

〈재활용 광물 파우더〉

日 배터리 원료 공급망 확대

에코프로 그룹 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에코프로씨엔지가 배터리 종주국인 일본에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주요 원료인 블랙매스(재활용 광물 파우더)를 확보하게 됐다.

에코프로씨엔지는 일본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인 ‘메탈두(METALDO)’와 블랙매스 공급 계약 및 중장기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에코프로씨엔지가 해외 업체와 블랙매스 공급 계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메탈두는 지난 1962년 설립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업체다. 파나소닉 등 일본 유수의 배터리 업체로부터 폐배

터리를 공급받아 블랙매스를 생산하고 있다. 에코프로씨엔지는 메탈두로부터 받은 블랙매스를 가공·처리해 리튬 등 유가금속을 추출한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에코프로씨엔지는 배터리 종주국인 일본으로 원료 수급망을 확대하게 됐다. 에코프로씨엔지는 국내외 업체들과도 원료 공급을 위한 협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에코프로 그룹은 지난 2020년 에코프로씨엔지를 설립하며 에코프로의 차별화한 이차전지 밸류체인인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Closed Loop Eco-System)’의 한 축인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시작했다.

/차현정 기자